

양성 노트

앤 멀킨, 국가양성위원회 영적보조자

이번 타우지는 초유의 영상으로 진행된 국가형제회 총회에 부칩니다. 이번 총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 총회이기를 바랍니다.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달콤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줄리엣의 표현을 빌리자면 “총회를 다른 말로 하면 모임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임일까요? 단순히 때가 되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총회는 우리가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총회는 영어로 chapter 인데 이 단어는 12, 13 세기 베네딕도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들이 모이면 함께 수도회 회칙 한 장(chapter)을 읽고 묵상한 연유로 모임을 chapter 라 부르게 되었고, 이 단어에 익숙한 성 프란치스코도 사용하게 됩니다.

총회란 무엇일까요? 종교 총회에 모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질문이 이상한 양성 주제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성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 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양성의 대리인로서 우리는 개인의 영과 마음에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돕습니다.

교회법적으로 일반 총회는 종교 단체 운영 권한을 가진 회원들의 정기적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공식 지침 문서에 따라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익숙한 두가지 총회가 있습니다. 매년 있는 국가/지구형제회 총회와 3 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총회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형제회나 지구형제회가 모임 경우 특별 총회라 합니다.

국제형제회는 3 년 마다 전체 총회를 소집하여, 전 세계의 모든 재속 프란치스칸 대표들이 모이는데, 이 전체 총회는 세계적 일치를 상징합니다. 국제형제회 선거 총회는 매 6 년에 실시됩니다.

성인께서는 정기적으로 형제들을 모아들여 형제회를 즐기며 여정 중의 경험을 나누게 하였고, 이 모임을 돛자리 총회라고 하셨습니다. 한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을 만큼 형제들의 수가 적었지만, 모든 형제들이 돛자리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Quinquennial 모임(미국 국가형제회 5 년 총회)는 우리들의 돛자리 총회입니다. 모든 재속 프란치칸들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끝으로, 총회 자체가 모임이기에 ‘총회 모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총회’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총회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에 더하여 마음으로 느끼는 총회에 대한 이해를 살펴봅시다.

어디서든 프란치스칸들이 모이면 형제회가 형성됩니다. 한 예로 지구형제회 회장들과 국가형제회 상임 위원회가 모여 국가형제회 평의회가 구성됩니다. 이러한 건강하고 활동적 형제회의 이상과 구성 요소는 총회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되는 총회에 관한 내용은 단위형제회 모임과 단위형제회 평의회에도 적용됩니다.

운영과 사무가 총회의 주 목적일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재속 프란치스칸들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의제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영결정자들은 의결보다 우선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표하는

회원들과 형제회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께 의탁함으로써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총회 동안 매일 개인과 공동 기도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임 국가형제회 봉사자 탐벨로 형제를 인용하자면 “지도자는 사무를 위하여 영적인 것을 희생치 않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거기에 기도는 하느님과의 연결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의 일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더하고 싶습니다.

모든 단위형제회 모임에서 영속적 양성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모든 총회 역시 영속적 양성에 시간을 할당합니다.

영속적 양성이란 표현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무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속적 양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 완전히 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아니라면 영속적 양성은 꼭 필요합니다. 영속적 양성이 이만큼 중요하기에 모든 프란치스칸 모임의 한 부분을 이룹니다.

발표 후 나눔 때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을 관찰하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이는 각 사람에게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이것이 영속적 양성이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영속적 양성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영속적 양성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많은 만남과 경험을 통해 우리를 양성하십니다. 여러 깨닫는 순간들은 성령께 열려 있는 데 대한 보상입니다.

모든 총회는 친교 시간을 할당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단위형제회 밖의 모임에 참석한 후, 모든 재속 프란치스칸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위형제회의 새로 양성봉사자로 선출되어 첫 국가형제회 양성 워크샵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다나 마리 카민스키 자매였고 처음으로 콘벤뚜알회 스티브 그로스 신부님을 만나서 저의 눈이 열렸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제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같지만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의 성소에 새롭고 깊은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며 삶에서 웃고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친교시간은 우리의 소속감을 향상시켜줍니다. 인간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를 필요로 합니다. 친교시간은 연대를 강화하고 자신의 약속을 다짐하게 됩니다. 단위형제회 밖의 모임은 평소 만나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고 형제적 연대를 형성케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2022년 5년차 돛자리 총회에서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무로 친교의 시간이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다들 뵙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매 앤